

## 강원국(참여정부 청와대 연설비서관) 3차 구술

1. 구술자: 강원국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2년 4월 19일
5. 구술장소: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6층 대회의실
6. 구술분량: 08분12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2004년 3·1절 연설과 두 번의 연설비서관실 방문

구술자 : 제가 그 당시[참여정부 초기] 선임행정관 격으로 이렇게 일을 쪽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참여정부 두 번째 해[2004년]죠. 두 번째 해에 삼일(3·1)절 연설을 준비하면서 대통령님께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삼일절 연설에서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 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고이즈미가 당시 그쪽 총리였는데, 고이즈미를 비롯한 일본 지도층과 지식인들에게 일침을 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전달이 저한테 안됐어요. [삼일절 연설문을] 쓰기는 이제 제가 썼는데 당일 아침 새벽에 인제 대통령님께서 그 연설을 보셨고, 그 당시에만 해도 이지원<sup>1)</sup>이 가동 안 할 때고 그래서 보고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갖춰져 있었을 때예요. 그때만 해도 이지원이 없으니까 문서로 올라갔고, 문서를 쌓아놨다가 인제 해당되는 날에 대통령님이 보시고, 그날 새벽에 보시고 마음에 하나도 안 드신 거예요. 대개 삼일절 연설은, 가령 이(2)년차다 그러면 지난 일(1)년, 이(2)년차 삼일절은 딱 일(1)년 되는 해거든요. 이(2)월 며칠날 취임<sup>2)</sup>이니까. 일(1)년간의 본인 성과, 업적을 정리하고 미흡한 점 이야기하고 그런 계기로 삼았어요, 삼일절 연설을. 그래서 저는 첫해 삼일절은 인수위에서 썼는데 그때 인수위에서는 삼일절 연설을 신경 쓸 사람이 아무도 없죠. 삼일절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인수위 업무가 제일 중요했고. 그 당시만 해도 취임사라든가 이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삼일절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저 혼자

1)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관리시스템 e지원(e-知園)을 말한다. '전자 지식 정원', '디지털 지식 정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2) 노무현 대통령 취임일은 2003년 2월 25일이다.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첫해 삼일절은 제가 써드린 거 그대로 읽으셨어요. 거기에 딱 한 줄인가를 추가하셨어요. 한 줄을 추가하셨는데[잠시 생각함] 한 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한 줄만 주문하셨어요. 그걸 넣어 달라. 그래서 첫해를 그냥 그대로 읽으셨기 때문에 다음에도 관성적으로 제가 써드리면 읽으시는구나 싶어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 썼던 방식대로 지난 일(1)년을 정리했거든요. 취임하시고 일(1)년을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굉장히 화가 나서 다 덮어버리시고. 아, [2003년 3·1절 연설에]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가 돼야 된다.’ 그, 삼일절에 그걸 넣으라고 하셨어요.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 불의가 패배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 딱 한마디 넣으셨고.<sup>3)</sup> 그래서 당일(2004년 3·1절) 아침에 굉장히 역정을 내시고 대통령님 그 길로 몇 글자 메모를 하셔가지고 세종문화회관으로 연설하러 가셨고, 생중계로 전체 방송되는 거였고 당시 프롬프트(prompt)를 보고 읽으시게 되어 있었는데 급하게 프롬프트 다 치우고. 생중계되는데 프롬프트 기계가 앞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딱 걸리적거리는 건데. 다 치우고 메모 가지고 연설을 하셨는데, 그런데 대통령께서 연설을 잘하셨어요.<sup>4)</sup> 그래서 속 시원하게 하셨어요.

연설문 전혀 없이 메모만 가지고 하셨는데 아, 연설을 너무 잘하셨어요. 굉장히 무게도 있으시면서 일본에 대해서 할 말 다 하시고.<sup>5)</sup> 전 언론이, 그걸 직접 들은 국민들이 속이 후련했고,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님도 기분 좋게 오셨고. [연설문에 문제가 생겼던 원인] 뭔가 전달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그 길로 바로 대통령님께서 저를 비서관을 시켜주셨죠.<sup>6)</sup> 그리고 본관으로 연설비서관실로 옮기라고 그래서 그때 올라가게 됐죠, 본관.

면담자 : 그 전에는 대변인실 이쪽에 [연설비서관실이 있었죠?]

구술자 : 공보수석실, 홍보수석실 거기에 같이 있었고 본관으로 연설비서관실이 올라간 것은 단군 이래 처음이죠. 청와대 생기고 나서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3) 2003년 3·1절 기념사 가운데 이 대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임. “참여정부에서는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성실하게 일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4) 노 대통령의 당시 메모는 노무현사료관 사이트에 공개되어있다. 등록번호 72532, 72533

5) 당시 연설문 중 일부다. “일본에 대해서 한 마디 꼭 충고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어,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굳이 역사적 사실을,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법·제도의 변화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미래를 위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얘기들을 절제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우리 국민들은 절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절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발언들은 흔히 지각없는 국민들이 하더라도, 흔히 인기에 급급한 한두 사람의 정치인이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적 지도자의 수준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절제할 수 있게 일본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6) 구술자는 2004년 5월 연설비서관으로 임명된다.

저희가 처음 올라갔죠. 원래는 본관에는 부속실하고 의전비서관실만 항상 있었고 처음으로 올라간 거죠.

본관에 올라와서 대통령 집무실 건너, 건너 방이었는데 대통령님 딱 두 번 오셨어요, 저희 방에. [본관에] 올라갈 때만 해도 원래 대통령님 꿈이 비서관들하고 어깨를 부딪치면서 복도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야말로 관저에서 삼겹살에 소주도 먹고 청와대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친구 같은 대통령' 그렇게 살고 싶으셨는데 막상 오시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연설 비서관실도 올라와라, 나랑 수시로 만나서 연설문도 같이 작성하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자' 그런 취지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긴장하면서 올라갔죠. 수시로 우리 방에 오실 거다 생각을 하고 뭐, 저희 연설[비서관실은] 엄청 쫓아가지고 올라갔죠. 그랬는데 정작 이제 올라온 날, 이사 온 다음날 들르셨어요. 그것도 아무 예고 없이. 통상 대통령님 오시면 '대통령님이십니다' 하고 대통령님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님 먼저 들어오시고 뒤에 경호원 그쪽 부속실에서 부랴부랴 따라 들어오면서. 오시자마자 '이사 왔는데 뭐 집들이 이런 잔치 안하냐?' 그러시더니 아무것도 없죠. '뭐라도 도(줘).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냉장고에서 음료수 종이컵에다가 따라서, 페트병에서 따라 드렸더니 거기서 정말 소탈하게 드시더라고요. 그거 드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잠깐 하시고 가신 뒤로는 저희 방에 안 오시고 딱 한번 오신 게, 저희 옆방이 국무회의 하는 회의장이거든요. 거기서 회의하시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셨는지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화장실 어디냐고. 대통령님 집무실 붙어있는 화장실은 아시는데 본관 이(2)층에 다른 화장실은 사실은 가실 일이 없으시죠. 그니까 저희 방 화장실인줄 알고 오셨는지, 하여튼. 화장실 찾으셔가지고 그게 딱 저희 방 두 번 오신 거고. 그렇다고 저희 방 안 오셨다고 해서 안 찾으신 게 아니고 대통령님 집무실로는 수시로 불러서 연설[주문] 쪽 하셨고, 주로 연설[준비]은 관저에서 많이 하셨어요. 관저에서 퇴청 후에, 저녁 때 많이 하셨고.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하셨어요. 시간되실 때 앉아서.

#### ■ 구술자 주요이력

1962. 전북 전주 출생

1990.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1997. 대우그룹 회장비서실

2000.08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2004.05 - 2008.02 대통령비서실 연설비서관

2013.04 메디치미디어 편집주간

2014.02 <대통령의 글쓰기> 출간

2016. - 전북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초빙교수

1997년 대우그룹 회장비서실에서 연설문을 쓰기 시작했다. 이후 국민의 정부 연설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참여정부 연설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대통령 연설문을 쓰며 경험한 것을 공유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문’을 기억하며 8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책 <대통령의 글쓰기>(2014)를 썼다.